

선우논강·화림원 동안거 간경결제 회향 현장

주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통해 본 오늘의 한국불교

선우논강과 화림원이 주최한 '2003-2004년 동안거 간경결제'가 17일 종합토론을 끝으로 회향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린 이번 간경결제에는 토론회마다 100여명의 출제자 수행자가 모여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통해 본 오늘의 한국불교'를 주제로 8번에 걸쳐 열띤 논쟁을 벌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고우스님의 총론적인 법문에 이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성철스님의 백일법문을 '중도와 수행법' '불교 수행과 현실 문제' '불교, 현실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눠 6시간에 걸쳐 각각의 견해를 내보냈다. 종합토론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주)

'성철禪'은 따로 없다

고우 스님, '손가락' 아닌 '달' 볼 것 강조

이번 간경결제를 통해 '성철스님 선(禪)'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고갔지만 '성철스님 선'은 따로 없다. '성철스님 선'이 곧 부처님 말씀이고 달마스님, 역대조사의 말씀이다.

너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했다. 성철스님이 평생 주장한 선, 불교, 중도가 모두 거짓말이라면 올 겨울 우리가 성철스님 백일법문으로 논쟁을 했는데 거짓말 가지고 했는가?

선사들이 불교를 설명할때 '1기1경1인1구(一機一境1인1구)~(一境一法一이)~네 가지 방법으로 한다. 가는 몸이나 동작으로 표현하고, 경은 주장자나 불자 등의 객관적인 물체를 가지고 하며, 언은 짧은 말, 구는 긴 말로 불교를 표현한다. 단일 '1기1경1인1구'로 불교를 표현했는데 그것으로 깨달았다면 매우 좋은 일거만 선에서는 '반살을 끊어서 부스럼내는 것이다'고 한다. 이것이 '불교'고 '선'이다. 어렵지만 조금더 살펴보자.

연기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여래를 본다

그런데 성철스님은 열반송 마지막에 '불은 해가 서쪽에 걸렸다'고 했다.

스님의 열반송 앞 구절은 존재원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마지막 구절은 존재원리의 한 단면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중도를 체험한 분들이 중도를 설명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유로 '달과 손가락', '땃목과 언덕'이 있다. 우리가 옮겨올에 얘기한 것은 '손가락'과 '땃목'을 가지고 얘기했다. 선지식들은 '달'을 가지고 얘기한다.



'연기(緣起)'와 '중도(中道)'는 같은 것으로 '중도연기'는 존재원리를 말한다. 형상 있거나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써 존재하고 있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내가 만들거 이전에 내 존재원리가 중도로 되어있고 연기로 되어있고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수행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다. 중도, 연기법,여래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이의를 절대로 '뉘는다' '증득한다' 이런말들을 용납하지 않는 종파가 '선'이다.

그래서 '선종' 이아말로 부처님말씀을 철저히 계승해온 종파이다. 선은 '달'만 비유하지 '손가락'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남원=이준엽 기자

자유토론 내용 요약

"중도는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저녁 12시까지 6시간동안 계속됐다.

성철스님의 선사상과 한국불교에 관련해서는 '중도'에 대한 논의와 '교와 선의 관계정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은 '백일법문은 처음부터 중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철스님은 초기불교에서 선종불교까지 하나라고 하지만 실천과정의 중도와 도법목적 지로써 중도가 다르다. 일부 중도론은 양변을 여인 것으로 표현하는데 경제적 불평등, 비구 보수나 이부승단의 불평등 등 양극단의 모순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다면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했다.

택해야하느냐'는 의문이 들었다.

이에대해 각목스님은 '이제 저것이 좋고 하는 것은 싸움뿐이다. 불자들에게 생명의 법이다. 인살을 조율한 부처님법이 된 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선우논강 대표선우철오스님은 '논의를 통해 중단이나 수행



종합토론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는 스님들.

고우스님은 "중도를 이해하면 다 해결된다. 중도란 아니라 남북통일도 된다. 중단에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패거리'이다. 이것을 고치는 것은 중도뿐이다. 중도는 도깨비방망이이다. 지구상 모든 문제는 중도만 이해하면 안풀리는 것이 없다. 아울러 우리에게 문제는 언행일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를 이해하고 아는것만큼 이해하도록 해야겠다"며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자의 생명은 언설초월한 '법' '수행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자'

중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돈오돈수가 어떻게든 그럴싸한 학문으로 바꿀 수 없다. 출가자는 수행자답게 살면 저절로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간다. 출발점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없이 이어지던 토론회는 '불교가 현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로 초점이 모아졌다.

구미종합복지관 진오스님은 "사회현장에 있다보면 '수행자답지 않다' '너부터 잘하라'는 식의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접

한다. 때로는 자비실천을 행하는 것이 출가자 답지 않게 보일수도 있다. 산속에서 참선 수행하는것도 존귀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대중교화도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토론 필자락에서 성철스님 상좌로 <백일법문>을 출간한 원택스님은 "스님은 <선문정로>를 받아들이고 '참마'가 '출가한 법'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법을 받은적이 없고, 누구에게 인가받은적이 없으며 <선문정로>를 확실히 아느냐가 법제자라고 말씀하셨다. 시봉하면서 보니 스님은 억지로 치열한 정진을 하시거나 일부러 공부하시지 않으셨다. 정좌불화와 같은 스님의 모습은 깨달음과 함께 저절로 따라온 것이다"며 생전의 성철스님을 회고했다.

월암스님 "투철한 청규 본받자"

성철스님이 백일법문을 통해 강조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의 백장청규 정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수행자의 일체 의례가 그대로 수행이 되게 하여 수행 그 자체가 그대로 삶이 되고, 삶 그대로가 깨어있음이 되는 '수오일여(修悟一如)'다. 둘째는 '선종경수(禪宗經疏)'로 불리지는 자급자족의 생선불교 지향. 오늘의 한국불교가 다음사상을 지향해야하겠다.

* 선교회통(禪教會通): 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선은 암증선(暗證禪)이 될 것이며, 선의 실천이 없는 교는 문자법사

(文字法師)의 오류에 빠질 것이다. * 계선일치(戒禪一致): 성철선 역시 철저한 지계의 바탕위에서 수행(禪定)과 깨침(智慧)을 강조하고 있다. * 해행상응(解行相應): 현재 한국선의 별명은 수행과 인격이 일치하지 않고, 깨달음과 실천이 병행하지 않는 데 있다. * 비지쌍운(悲智雙運): 이판은 사판의 자비를 인정하고, 사판은 이판의 지혜를 아울러서 이판과 사판이 모순의 대립을 지양하고 비지쌍운의 상생을 실현할 때 이판적 사판, 사판적 이판의 원융살림(圓融的인화)이 이루어질 것이다.

* 둔집경수(頓漸經疏): 실천수행이 없는 둔집논쟁은 회론에 불과하다. * 간화정종(看話正宗): 선종사에서 볼 때 마지막 제기된 수행법이 간화선이다.

수행자체가 깨어 있는 삶

혜원스님 "돈오선 강조한 뜻 점검을"

성철스님의 선수행은 사교입선(捨教入禪)으로 고려말, 조선시대 선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승했다고 봐야한다. 조계종의 종지는 '지치인심 견성성불'이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승가의 교육이다.

성철스님이 백일법문에서 극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돈오선'을 하자는 것이다. 돈오선에 어긋나는 선법이라면 지체 없이 하지 말아야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철스님의 선수행관은 육조 조계선법을 벗어난 선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새로운

실참실수 지도점검 구비돼야

선법을 내세워 기존의 선법의 잘못되었음을 질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선의 근본선리의 체득은 진성의 오수(悟修)이며 법성의 파악이며 선법으로서의 돈오 문제를 오늘날 한국불교의 선수행상에서 여러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통적으로 실천수행하고 있는 선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종의 반성이기도 하다.

명인종사의 지도와 점검이 구비돼야 하며 대중 청규가 실천되어 사위의(四威儀)가 불행(佛行)되도록 선종(禪宗)은 서로 청규(淸規)한 공부를 시켜야한다. 성철스님의 <선문정로>가 백일법문에 나타나 있듯이 오늘날 선수행 문제점의 해결은 스님의 법문에서 발견되어진다고 본다.

세등스님 "둘이 아닌 진리로 살아야"

성철스님의 사상은 이론과 실제,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닌 실천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불교수행은 주로 참선 및 명상수행을 말하며, 사회활동으로는 포교의 일환으로 일부 출· 재가불자들이 교육 및 복지, 환경보호운동 등에 종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불교는 수행과 활동을 구분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어 출가자의 사회활동은 소극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하다. 사승 회합동이 곧 자신을 비우는 적극적인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한국의 승가가 수행과 활동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풍토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제도와 교육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예를 들어 선객이 해제기간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학자 포교사 및 사회활동가들이 안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

수행·교육제도 개혁 필요... 승려의 기초교 육기관인 강원, 승가대학에서는 '지혜와 자비', '자리와 이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이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개혁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이 '자리와 이타' '수행과 현실참여'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깨는 일이다.

Advertisement for 'Gyeonggang Gyoju' (金강염주) featuring a mala necklace. Text includes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and '성공광선과 금강의 강행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Advertisement for 'New Zinicom' (뉴~지니컴) featuring an English learning robot. Text includes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and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